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1 코로나19 대응 식품 꾸러미 사업[1)]

■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 꾸러미(Food Box)를 배송하는 사업을 실시함.

- 2020년 4월 17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대응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됨.
- 취약계층 식품 꾸러미 사업(Farmers to Families Food Boxes)은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함.
- 1차 배송을 통하여 2020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3,560만 개의 식품 꾸러미(약 12억 달러 규모)를 전달하였으며, 2차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억 7,000만 달러 규모의 꾸러미를 추가로 배송하는 중임.

■ 식품 꾸러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됨.

- **(대상자)** 사업의 대상인 취약계층[2)]은 소득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식품 공급이나 섭취에 방해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함.
- **(배송방식)** 농무부 마케팅지원청에서 식당, 호텔 등의 영업 중지로 인하여 일자리를 위협받는 전국 및 지역의 식품 배송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분배 중심지 혹은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함.
- **(지역구분)** 배송은 미국 전체를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이루어지며, 여러 지역을 동시에 배송하는 업체들도 존재함.
- **(제한사항)**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식품 꾸러미에 들어갈 상품을 채워야 하며, △보존제, 안정제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제 사용이 금지됨.

1)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USDA Farmers to Families Food Box"(2020.8.11.),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Basic Ordering Agreement Solicitation"(202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2)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USDA ERS)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2018년)에 따르면 미국 내 식품 안전성 취약계층이 약 11.1%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식품 꾸러미는 한 가족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유제품 그리고 육류와 계란 등을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함.

- **(전체분량)** 총 30~40파운드 무게의 한 가정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식품을 포함하며, 신선 과일 및 채소와 반조리 된 육류를 모두 포함하는 꾸러미(Combination Box)로 구성되어야 함.
- **(신선 과일 및 채소)** 10~12파운드 분량의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긴 뿌리채소(감자, 얌, 당근, 양파 등)와 과일(핵과류, 사과, 멜론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 1~2개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육류와 계란)** 5~6파운드의 반조리 된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이 가능한 육류 가공품 2가지를 포함해야 함.
- **(유제품)** 5~6파운드의 치즈, 버터, 요거트, 사워크림 등을 포함해야 함.
- **(기타)** 식품 꾸러미 내에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영양분 표시, 알레르기 주의 표시, 추적을 위한 코드, 식품 조리 방법 등 품질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부가적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1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3)]

■ 2020년 7월 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EU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국발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 경제는 긴 침체에 빠졌지만, 2020년 초기에 EU의 농식품 무역은 안정세를 보임. EU의 전체 교역액은 2019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786억 유로로 나타남.

■ **[전체수출]**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468억 유로를 기록함.

3)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MARCH 2020"(2020.7.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연도별 EU 농식품 수출액 |

단위: 백만 유로



- **(국가별 수출 증가)**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촉진되어 전년 대비 11억3,600만 유로 증가함.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러시아, 미국 순으로 수출이 증가함.

- **(국가별 수출 감소)**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 1월 브렉시트 단행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700만 유로 감소함. 이외에 홍콩, 레바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출이 감소함.

■ **[수입]**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318억 유로로 나타남.

| 연도별 EU 농식품 수입액 |

단위: 백만 유로



- **(국가별 수입 증가)**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임. 전년 대비 100% 넘는 3억 6,600만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터키,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입이 증가함.

- **(국가별 수입 감소)** 수출과 마찬가지로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이며, 특히 주류, 제과, 곡물류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이외에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인도 순으로 수입이 감소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7.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자 보호 지침[4)]

■ EU의 농업 분야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매년 약 100만 명의 계절근로자가 국경을 초월해 EU에서 활동하지만, 작업의 일시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근로와 함께 생활 여건이 취약함.

- 이에 코로나19가 계절근로자의 근로 안정성을 위협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호 지침을 발표함.

- **(평등한 대우)** 계절근로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고용된 국가의 노동 관련 법률과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보수, 해고, 산업 안전, 보건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 해당 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세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 또한, 해당 회원국의 고용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비자발적 실업 시 6개월 동안 해당 국가의 노동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 **(근로환경)** 계절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20개 이상의 지침을 규정함. 고용주는 작업상의 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방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원국은 고용주가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 계절근로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생활환경)** 계절근로자의 주거와 운송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지침은 계절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주거지와 코로나19 관련 보건 및 안전 조치 기준을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함.

- **(사회보장)** 계절근로자는 사회 보장기여금 납부 등을 통해 해당 회원국의 국민과 동일한 사회 보장제도[5)]에 가입할 수 있음.

4)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oronavirus: European Commission calls for action in protecting seasonal workers"(2020.7.1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5) 비EU 국가 계절 근로자는 체류의 일시성을 감안하여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연구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임.

- 회원국 간 계절근로자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상설 포럼을 개최하고, 유럽노동청(European Labour Authority; ELA)을 초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회원국의 제3국 계절근로자 보호 이행에 관한 평가를 진행 중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6)]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인 Recovery Plan for Europe을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2021~2027년까지의 다년간의 예산안을 확정함.

- 예산안의 규모는 약 1조 8243억 유로로, 2021~2024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한 차세대 유럽연합[7)](Next Generation EU)이 포함됨.

■ 전체 예산 중 공동농업협정(Common Agricultural Policy) 예산은 2,399억 유로로 예산의 약 13%를 차지함.

- 농업, 해양 정책 및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 예산으로 3,563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약 2,586억 유로는 직불금 및 시장 대응 예산임.

- 개정된 공동농업협정은 이전처럼 시장 대응과 직불금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Pillar Ⅰ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Pillar Ⅱ로 구성됨.

- 공동농업협정에는 최대 2,399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며, 공동농업협정 예산의 40%는 기후변화대응(Climate Action)에 사용될 것임.

■ Pillar Ⅰ은 직불금 제도와 매년 4억 5000만 유로 규모의 농산물 비축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됨.

6)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17, 18, 19, 20 and 21 July 2020) – Conclusions"(2020.7.21.)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7) 차세대 유럽연합의 7,5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예산은 3,900억 유로의 양여금과 3,6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경제회복, 사적 투자 지원 및 새로운 건강관리 체계의 도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제도[8]는 2022년은 최소 200유로/ha 수준, 2027년에는 최소 215유로/ha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 시장 조절 및 안정화 그리고 농업 생산 및 농산물 분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비축제도를 운영하며, 비축량 사용 시, 유럽 농업 보장 기금(European Agriculture Guarantee Fund)의 수익을 통하여 비축량을 유지함.

■ Pillar Ⅱ는 유럽 농촌 개발 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을 통하여 운영되며, 총 778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됨.

- 회원국 중 농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농촌 개발에 많이 투자한 경우 등으로 Pillar Ⅰ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 Pillar Ⅱ 예산 일부를 Pillar Ⅰ로 이전이 가능[9]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1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10]

■ 2020년 7월 16일 디앤드엠[11]과 크로스로케이션[12]이 공동으로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의식 변화 조사[13] 결과를 발표하였음.

■ **[슈퍼마켓 이용 횟수 및 시간대 변화]** 코로나19 확산 후 일주일에 슈퍼마켓 이용 횟수는 3일에서 2일로 감소하였음. 또한, 평일 낮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저녁 시간대에는 상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늘었음.

8)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소득 지원 제도(Basic Income Support for Sustainability)의 직불금 상한선은 100,000유로로 설정함.
9) 예산 이전 신청을 한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몰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가 있음.
10)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購買・意識の変化を調査、来店回数減も購入単価増」(2020.7.2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1) D&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조사 및 분석 기업을 의미함.
12) X-Locations Inc,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라우드형 플랫폼 제공 기업을 말함.
13) 조사는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아이치현의 종합 슈퍼마켓 277점포에서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유효 샘플 수는 2,191건임.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지출 금액·상품 수]** 코로나19 감염 확대 후 슈퍼마켓에서 지출 금액대가 2,000~3,000엔에서 3,000~5,000엔으로 증가하였으며, 구매 상품 수도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함.

■ **[소비자 방문 증감 요소]** 소비자 방문이 증가한 지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구매 가능, 다양한 식품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이 감소한 지점의 소비자 감소 요인으로는 매장 혼잡, 낮은 접근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품 구매 변화]** 코로나19 확대 전후로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유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과자·디저트, 드러그 스토어[14](drugstore)에서는 유제품 및 물·음료,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음료, 택배·배달 서비스(생협 등)는 신선식품 구매가 증가하였음.

■ **[소비자 구매처 변화]** 코로나19 확대 이후 인터넷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편의점, 잡화 할인점 등의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7.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의약품과 함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를 말함.